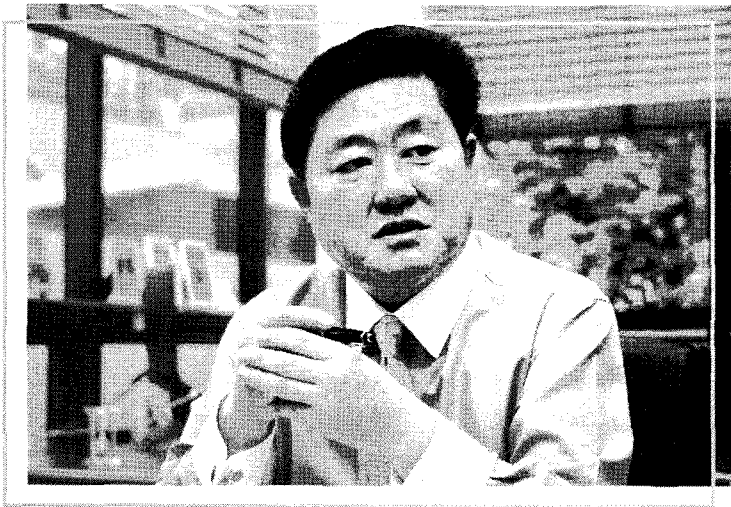


## 고객만족도 1위, 브랜드 인지도 1위 위해 최선 다할 것

▣ 두산생물자원(주) 박근호 대표이사



“고객과 기업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내 최고의 축산전문기업이 우리의 비전으로써 역동적이고 긍정적이며, 생산적이고 수익성 있게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실행하며, 고객만족도, 브랜드 인지도 1위로 100만톤 생산판매를 타겟으로 두산생물자원을 경영하고 축산업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이는 3년전 박근호 사장이 두산생물자원(주)을 맡으면서 말한 취임 일성이자 이제까지 지켜온 그만의 경영철학이다. 박 사장이 취임할 당시의 상황은 환율폭등 및 원재료비 상승 등 축산·사료산업의 상황이 최악

이었다.

위기에 처한 두산생물자원을 회생시키기 위한 구원투수로 선발된 박 사장은 취임하자마자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급선무라고 생각하여, 이후 3년 동안 내부적으로는 조직강화 및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외적으로는 산학 연구개발 및 친환경 신제품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등 끊임없는 연구개발과 타고난 경영능력으로 두산생물자원을 정상화 시켜 냈다.

경남 거창이 고향인 박근호 사장(57세)은 아주대학교 공업경영과를 졸업하고 지난 1981년 1월 두산제관(주)에 입사하면서 부터 본격적인 두산맨이 되기 시작했다. 박 사장은 두산제관(주), 두산테크팩(주), 삼화왕관(주) 등 두산그룹 핵심부서의 요직을 두루 거치며,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지난 2008년 10월에 현재의 두산생물자원(주) 대표이사로 발탁이 됐다. 다음은 박근호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Q. 전환기의 축산 및 사료산업이 나아갈 길은?

A. 연이은 규제역과 AI 발병으로 인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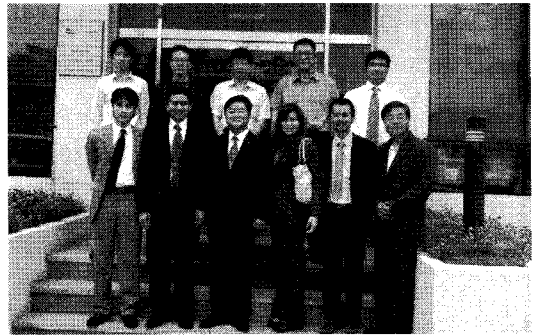
가축사육수수가 감소함에 따라, 연간 사료 생산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료생산량이 전년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축산업과 더불어 연관된 사료산업도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최근 국제 곡물값이 크게 상승하고 있고 FTA 체결 등으로 수입 축산물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강화됨에 따라, 축산 관련업계 모두가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 우리 모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실시해야 합니다.

첫째, 우선적으로 악성 가축 전염병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함께 우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확인하였듯 구제역 방역에 대한 실질적인 매뉴얼이 빈약해 현장에서는 우왕좌왕하며 구제역에 특별한 준비 없이 당하였습니다. 그 동안은 잘 방어해왔지만, 한 번의 방역 실패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이번 사태로 인하여 절실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각 농가에서의 방역 및 대응 방안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이를 수시로 훈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축산관련 산업 참여자 모두가 힘을 합쳐서 선진국에 비해 뒤쳐진 생산성의 향상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양돈의 경우 유럽 선진국 대비 모돈 두당 연간 출하두수가 무려 10여 마리 가까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산란계도 산란지수가 선진국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생산성으로는 수입 축산물에 대하여 가격 경쟁력을 갖을 수 없습니다. 생산자들은



▲ 말레이시아 사료공장 기술컨설팅 요청으로 인한 내방

절대 과밀사육을 금할 것이며, 생산단계별 매뉴얼을 철저히 지켜서 떨어지는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료회사는 우수한 품질의 사료 공급뿐만 아니라, 대체원료 개발을 통하여 보다 저렴하게 사료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해외 및 국내에서의 사료 부존자원의 개발에 모두가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곡물 자급도는 사료용을 포함해 쌀 94.4%, 밀 0.4%, 옥수수 0.9%, 콩 7.1% 등으로 전체 26.2%에 불과합니다. 또한 곡물 수입량은 1,300만톤으로 세계 7위의 수입국입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사료의 원료를 수입하여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료작물 생산 확대를 위해 유희농지 사료작물 재배로 사료자급률을 제고시켜야 합니다. 법개정을 통하여 사료작물의 지속적인 재배를 통해 사료원료 수입 의존도를 낮추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해외로 눈을 돌려서 맞춤형 해외농업개발 전략을 수립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유형별 지역별 전략 작물별 단계별 전략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해외자원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해외농업개발펀드 조성과

민간부문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안정적인 재원조달 대책도 마련해서, 보다 능동적인 해외자원 확보에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Q. 사장님이 생각하는 본인의 성격은?**

A. 제 스스로를 평가한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합니다만은 모든 일에 열정적이고, 다혈질적이며, 승부욕이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사귀는 것을 좋아해 웬만한 잡기는 즐겨합니다. 해서, 인맥은 좀 넓은 편입니다. 보기 보다는 친화력과 화통함이 있는 편이며, 술은 좀 하는 편이라 당사 간부들 중에는 제가 1,2위 정도는 된다고 평을 합니다.

반면에 눈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드라마 내용 중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면 저의 가족 중 제가 제일 먼저 눈물을 보이는 편입니다. 저의 직원들은 감히 상상도 못할 겁니다. 일부 간부는 알고 있을 겁니다.(웃음)

**Q. 취임 이래 평가할 수 있는 업적들은?**

A. 제가 취임 할 때에는 환율폭등 및 원재료비 인상 등 축산업의 상황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전열을 가다듬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여, 취임 3년동안 내부적으로는 조직강화 및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외부적으로는 산학 연구개발 및 친환경 신제품 출시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 백두가족거러채 및 농기과의 두산베어스 응원 및 바비큐 증정

팀간 업무분장으로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하고, 개인 조직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업계 전문인력을 영입하여 축종별 전문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당사의 오랜 숙원이었던 전국 영업망구축을 위해 2010년 3월 영남지점을 개설하였으며, 철저한 품질관리 및 신제품 관리를 위해 안면도 시험시양목장과 중앙대 농장에서의 제품개발 검증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 동물자원학과 및 신약개발연구소와 MOU체결을 통한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연구협력으로 천연허브 향균제를 개발하였습니다. 이 허브제는 2011년 7월부터 사료내 항생제 첨가금지 시행에 대한 완벽한 대비책으로 백두사료만의 노하우가 담긴 제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Q. 사장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소망은?**

A. 두산그룹에서 중심적인 회사, 업계에서 조직 구성원들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회사, 그리고 평온과 행복이 넘치는 회사로 만들고 싶습니다. 회사구성원 개개인이 자발적으로 창의력을 발휘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주는 것이 CEO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재를 육성 발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원칙에 입각한 투명하고 깨끗한 경영과 고객에게 보답하는 가치경영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인 소망은 저와 두 딸이 두산그룹에서 근무를 하게 해 주신 은혜, 저의 가정을 평화롭게 이루게 해 주신 두산에 대한 저의 마음의 빛을 두산생물자원의 발전으로 갚고 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Q. 앞으로 두산생물자원(주)을 이끌어 나아갈 계획은?**

A. 축산전문기업의 선두주자로서, 반세기 동안 쌓아온 축산업의 노하우를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해외시장에 기술제휴 컨설팅을 실시함으로써 새로운 블루오션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농·축산업 기반이 취약한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체 원료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사료생산비를 낮추어, 원가경쟁력을 갖춰 고객에게 저렴하고 우수한 품질의 사료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당사는 동남아 지역의 관련회사와 기술제휴 MOU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지의 저가의 대체원료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두산생물자원은 초일류 축산종합회사로서 친환경 축산업이 국내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고객과 함께 기술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목표인 고객만족도 1위와 브랜드 인지도 1위를 위해 친환경 사료개발과 생명공학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Q. 구제역 종식 이후의 대책은?**

A. 저희 백두사료는 철통같은 방역은 물론 살처분 농가가 신속하게 재입식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입식에 대한 각종 인허가 절차를 담당 직원들이 도와드리고 있으며, 농장 내외부 청소, 전기 안전시설 점검 및 방역기구 정비등을 백두사료 직원들이 직접 도와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후보돈을 지원하기 위하여, 후보돈 구입 연계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후보돈에 대한 평가와 사양관리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여 재입식 농가에 대한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금의 흐름이 끊긴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중앙대학교와 산학협력 MOU체결 사진

또한 보상이 늦어져 재입식이 지연되고 있는 농가에는 일부 재입식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Q. 최근 관심을 갖고 있는 중요한 사항은?**

A. 2012년부터 축산분뇨 해양투기가 전면적으로 금지됩니다. 당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은 축산분뇨 처리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계열사의 기술력과 당사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고객들의 분뇨처리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미래의 주요사업은 생명공학 사업이 될 것입니다.

**Q. 이 밖에 추가로 더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A. 두산에는 2G 전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성장(Growth of People)을 통한 사업의 성장(Growth of Business)의 선순환을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인재육성을 매우 중요시하며 “기업의 성장 요인에는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두산의 일원이 된 신입사원이 백년 기업, 두산의 또 다른 100년을 일귀나갈 동량이 될 것입니다.

(글·사진 : 권영길 차장) 